2024.06.05.(수) 증권사리포트

하이브
화해 신청 중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높은 가격 매력과 하반기 충분한 모멘텀
어도어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뉴진스의 이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기에 이익의 추가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국 밸류에이션 혹은 센티먼트 관점에서의 저점이 중요한데, BTS 진의 제대에 따른 팬덤 결집과 미국 신인 걸그룹 데뷔, 그리고 하반기 위버스 플랫폼 수익화(멤버십+)도 앞두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상존하나 BTS의 순차적인 군입대, 중국 앨범, 그리고 어도어 이슈 등으로 1년에 걸친 가격 및 기간 조정으로 인해 주가 매력도가 높아졌기에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신인 그룹들의 성과는 빠르게 확대 중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900억원 내외인데, 최근 앨범 판매량만 고려해본다면 엔하이픈의 컴백이 2분기가 아닌 3분기(7월)이고, 뉴진스의 앨범 초동이 급감하는 이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방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인 그룹들의 기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넥스트도어가 전작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초동이 70만장을 상회했고, 아일릿도 누적으로 50만장을 상회했다. 데뷔곡이 멜론 월간 TOP3를 기록한 투어스가 6월에 빠른 컴백을 결정하였고, 세븐틴의 유닛도 컴백한다. 투어에서는 세븐틴/TXT/엔하이픈의 월드 투어와 뉴진스의 일본 도쿄 돔 팬미팅 등 약 100만명 내외의 관객 수가 반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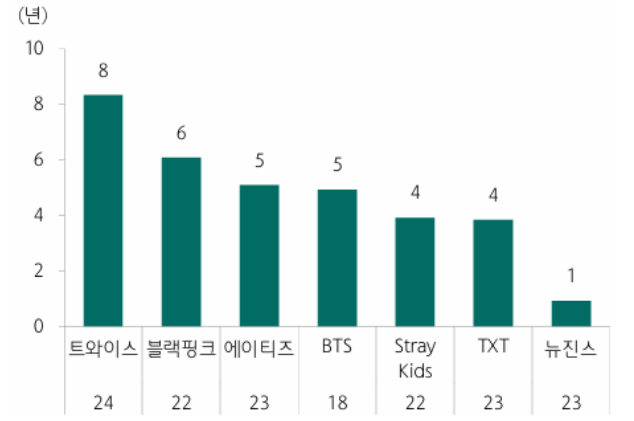
하이브에게 공이 넘어가버린 어도어 이슈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이 되었지만, 본안 소송을 통해 여전히 쟁점 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해 해임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복합적이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를 제안한 상황이고, 과정이 어찌되었건 해당 이슈를 자의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해당 이슈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인적 리스크 역시 빠르게 소멸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점 또한 사실이다. 하이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해당 이슈가 마무리된다면 BTS멤버들의 순차적인 제대와 미국 걸그룹의 데뷔라는 호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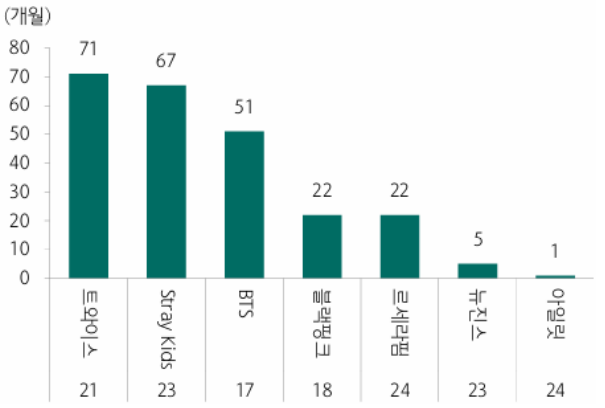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776.2	2,178.1	2,287.9	2,896.1
영업이익	236.9	295.6	298.7	455.9
세전이익	96.5	250.1	379.7	550.9
순이익	52.3	187.3	274.4	394.1
EPS	1,265	4,504	6,588	9,462
증감율	(64.92)	256.05	46.27	43.62
PER	137.15	51.84	30.36	21.14
PBR	2.59	3.33	2.67	2.44
EV/EBITDA	19.12	22.88	20.22	14.35
ROE	1.87	6.58	9.09	12.08
BPS	66,995	70,090	74,782	81,938
DPS	0	700	2,100	2,700

도표 7. 아티스트별 빌보드200 1위 달성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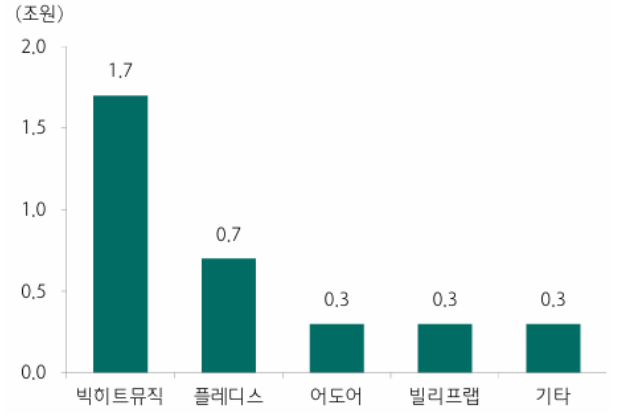
주: 아래 숫자는 빌보드200 1위를 기록한 연도
자료: 빌보드, 하나증권

도표 8. 아티스트별 빌보드 Hot100 첫 진입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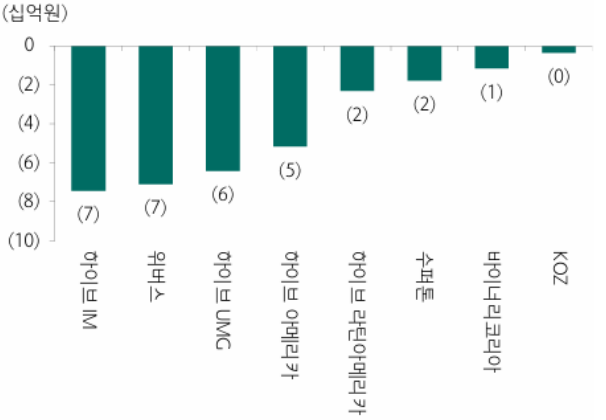
주: 아래 숫자는 빌보드 Hot100에 처음 진입한 연도
자료: 빌보드, 하나증권

도표 9. 국내 레이블의 2025~2026년 추정 매출액 – 합산 3.3조원



자료: 하나증권

도표 10. 2024년 1분기 주요 적자 종속기업 순이익 현황



주: 위버스 순이익은 위버스 아메리카와 재팬까지 포함한 것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자금 부담은 언제 나아지나
[출처] 유안타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

2024년 2분기 예상 영업이익 3,760억원, 감익
2024년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8조원, 영업이익 3,760억원(영업이익률 2.1%), 지배주주 순이익 294억원' 등이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6,247억원 대비 △40% 줄어들면서 약세가 예상된다. 정제마진 급락(OSP 반영 후 1분기 6.1$ → 2분기 3.0$)으로 정유부문 실적 감익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배터리 부문도 적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2,000억원 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부문별 예상 손익은 '정유 1,725억원(전분기 5,911억원), 배터리 △2,611억원(전분기 △3,315억원), 석화/윤활유/자원개발 5,453억원(전분기 4,993억원)' 등이다.

2 ~ 3분기 정유설비 증설 및 배터리 저율가동 부담
2 ~ 3분기 정유와 배터리 동시 약세에 주의해야 한다. 1) 정유부문의 수익 지표인 싱가폴 정제마진은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 ~ 4.5$을 하회할 것이다. 쿠웨이트 Al Zour 62만b/d, 나이지리아 Dangote 65만b/d, 멕시코 Olmeca 34만b/d 등 대형설비 가동이 집중되면서, 공급압박이 늘어난다. 4분기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2) 배터리 가동률 70% 전후로 부진해 적자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수율 90%, 가동률 90% 수준이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공장별 가동률은 중국 85%, 유럽 70%, 미국 10 ~ 20%에서 머물러 있다. 총캐파 88GW에서 2분기 헝가리 30GW, 3분기 중국 33GW 증설 완공으로 인해, 가동률 회복은 더딜 전망이다.

목표주가 하향, 배터리 투자금 대책이 필요해!
2024년 2 ~ 3분기 실적 약세와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감안해, 2024년 적정주가를 20만원(직전 24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배터리 7.5조원 등 총 Capex 9.5조원에 비해, 세후 EBITDA 3.5조원으로, 6조원 규모의 외부 자금조달이 또다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영업손익은 2023년 1.9조원에서 2024년 2.0조원, 2025년 2.8조원(배터리 1,057억원 흑자 가정)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PBR 0.42배로 바닥에 위치해 있어 현주가 레벨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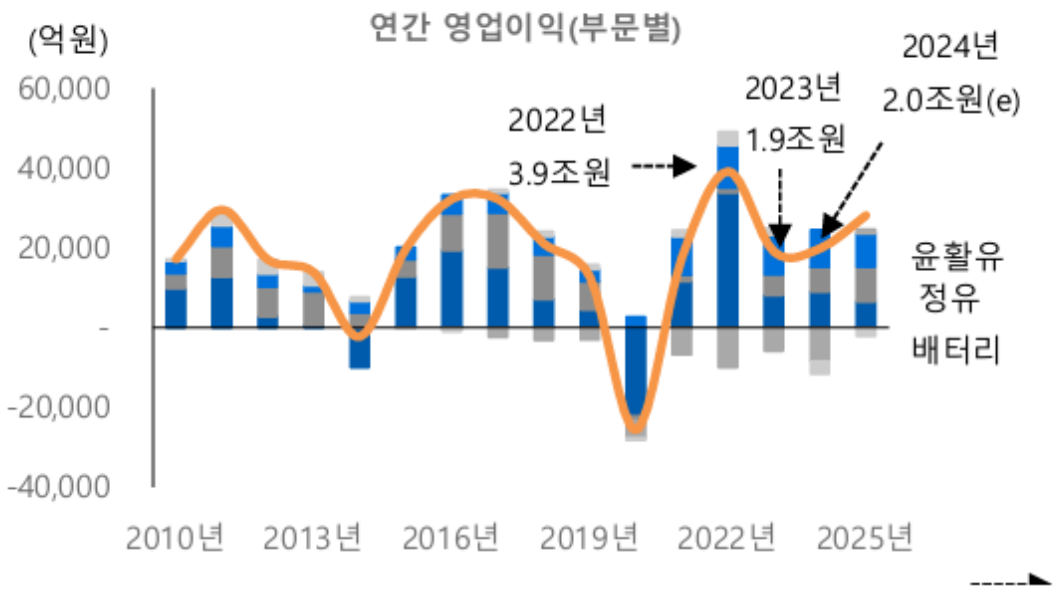
	2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83,321	-2.1	-2.8	197,038	-7.0
영업이익	3,760	흑전	-39.8	5,711	-34.2
세전계속사업이익	403	흑전	121.6	3,449	-88.3
지배순이익	294	흑전	흑전	2,345	-87.5
영업이익률 (%)	2.1	흑전	-1.2 %pt	2.9	-0.8 %pt
지배순이익률 (%)	0.2	흑전	흑전	1.2	-1.0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780,569	772,885	725,301	688,012
영업이익	39,173	19,039	19,813	28,146
지배순이익	15,690	2,563	5,285	16,327
PER	11.6	62.3	20.2	6.6
PBR	0.9	0.7	0.4	0.4
EV/EBITDA	6.7	12.4	10.6	9.3
ROE	8.5	1.2	2.3	6.7

자료: 유안타증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와이씨켐

신규 소재 공급 기대감

[출처] 하나증권 김민경 애널리스트

1Q24 Review: 가동률 회복, 재고 감소 확인

와이씨켐의 24년 1분기 매출액은 159억원(YoY -3%, QoQ +8%), 영업손실 26억원(YoY, QoQ 적자지속)을 기록. 반도체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에 따라 매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나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감소 제품별로 Photo 소재(포토레지스트 및 SoC), PR 린스 매출은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나 Wet Chemical(Developer 등)은 전분기대비 감소. Photo 소재에는 TS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고객사의 TSV Capa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3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 반면 CMP 슬러리는 24년 초부터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해당일정이 하반기로 지연될 전망

신규 아이템 공급 진행상황
상장 시점부터 언급해왔던 EUV Rinse 공급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 EUV 광원의 파장은 13.5nm로 KrF(248nm), ArF(193nm) 광원 대비 파장이 1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 다만 선폭이 미세해지는 만큼 종횡비가 높아져 PR이 쓰러지는 문제(pattern collapse)가 발생하게 되는데 PR Rinse는 이 때 PR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쓰러지는 것을 방지 와이씨켐은 최근 반도체 고객사 두 곳에 PFAS Free EUV 린스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연내 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와이씨켐의 유리기판향 PR, Stripper, Developer 및 코팅제 또한 고객사 양산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장비 사업 분야 진출로 신규 성장 동력 확보
와이씨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사업 진출을 발표한 바 있음. 준비중인 장비는 웨이퍼 세정장비 및 고선택비 인산 농도 분석 장비. 웨이퍼 특수 세정장비는 현재 개발 완료 후 반도체 소재업체에 공급을 준비중에 있으며 고선택비 인산 농도 분석 장비는 반도체 제조사 요청으로 개발 중. 고선택비 인산 농도 분석 장비는 NAND 생산 시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인산계 식각액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장비. 이르면 고객사에서 연내 테스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형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63	61	66	82
영업이익	5	4	2	5
세전이익	1	3	(2)	4
순이익	1	4	(1)	4
EPS	141	483	(102)	460
증감율	31.8	242.6	적전	흑전
PER	0.0	0.0	0.0	24.9
PBR	0.0	0.0	0.0	1.7
EV/EBITDA	0.0	0.0	0.0	12.9
ROE	5.0	14.8	(2.9)	6.2
BPS	2,803	3,270	3,440	6,681
DPS	0	0	0	100

롯데케미칼
펀더멘털 개선 사이클의 초입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올해 PBR, 1991년 상장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치 기록 중...
롯데케미칼의 올해 PBR은 0.3배로 상장 이후 주글러 파동이 3~4번 반복할 동안, 2번째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낮았던 2000년의 경우 PBR이 0.25배였는데, 경기 위축으로 인한 화학 제품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에틸렌/MEG/PE 설비 급증으로 향후 핵심 제품(특히 이익기여도가 50%였던 MEG)의 실적 둔화 전망과 스팀 크래커/PP 증설에 따른 투자비 부담이 이어졌었다. 현재도 중국의 증설 확대로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동사의 기초화학부문은 올해 1분기에 EBITDA 흑자로 전환되었고, GDP/산업 생산/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지표의 전망치 등의 개선과 에틸렌 순증 감소로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올해 대규모 Capex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동사는 일진머티리얼즈/롯데정밀화학 등 지분 인수 등 비석유화학부문 포트폴리오 확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향 매출 비중 축소 등 지역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에 과거 대비 차입금이 증가한 것은 명백하다. 다만 규모가 Capex가 투입된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는 거의 기계적 완공이 진행된 상황이며, 올해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2022~2024년 동안 이어진 연평균 3조원 수준의 Capex(총 9조원)가 내년에는 1.7조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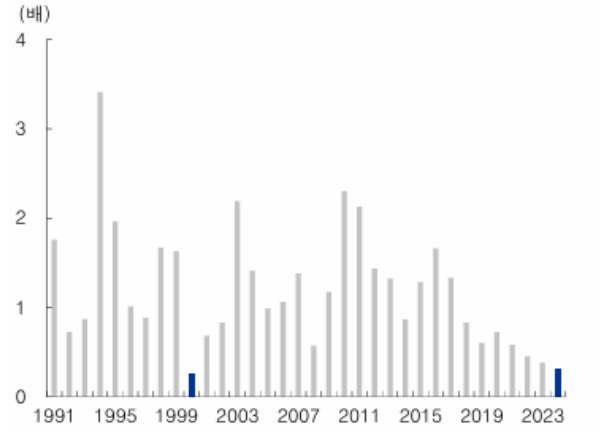
점진적 질적 성장 전망
단기적으로는 동사 기초화학부문의 순자산 비중이 80% 이상이라, 태양광/배터리 등 신성장동력의 자산 비중이 기존 석화자산 대비 커진 경쟁사 대비 상대적 저평가 구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동사는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CEO가 직접 범용 석화사업 구조 개혁 등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미래현금흐름 개선

등을 최우선 전략과제로 언급하였다. 기초화학부문의 EO 유도체(전해액 유기용매/헤셀로스 임가공/EOA) 강화, 첨단소재부문의 기능성 컴파운딩 증설(50~70만톤), 정밀화학부문의 TMAC/식의약 라인 증설, 전지소재부문의 해외 동박 설비 증설 및 수소에너지부문의 부생수소 활용, 발전/수소탱크 사업 진행 등으로 질적 성장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2,276	19,946	20,856	21,433	22,067
영업이익	-763	-348	38	601	838
세전이익	-393	-452	42	905	1,163
지배주주순이익	62	-50	8	657	844
EPS(원)	1,709	-1,194	197	15,349	19,731
증가율(%)	-95.4	-169.8	-116.5	7,698.7	28.6
영업이익률(%)	-3.4	-1.7	0.2	2.8	3.8
순이익률(%)	0.1	-0.2	0.2	3.3	4.1
ROE(%)	0.4	-0.3	0.1	4.1	5.1
PER	104.4	-128.3	574.7	7.4	5.7
PBR	0.4	0.4	0.3	0.3	0.3
EV/EBITDA	65.3	21.1	10.9	7.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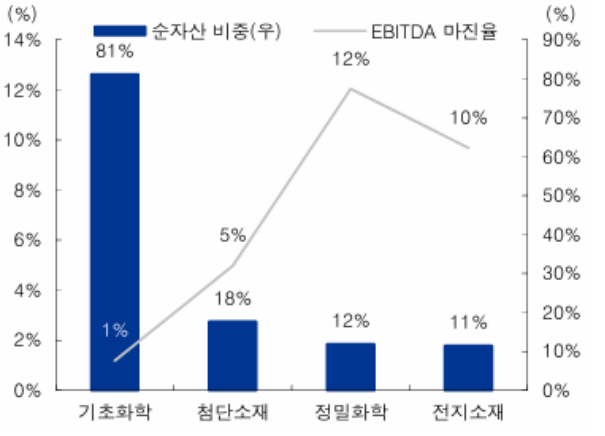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롯데케미칼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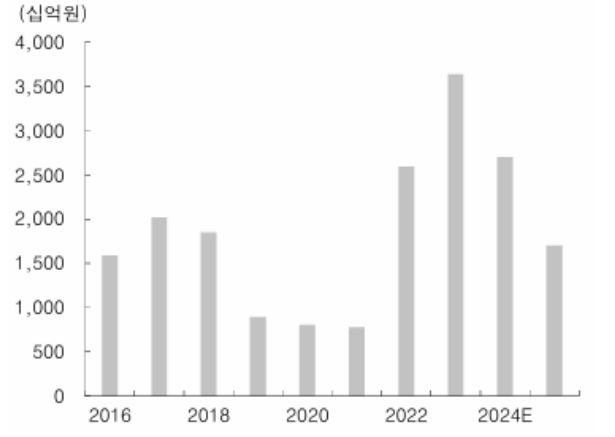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롯데케미칼 부문별 실적/자산 현황(2024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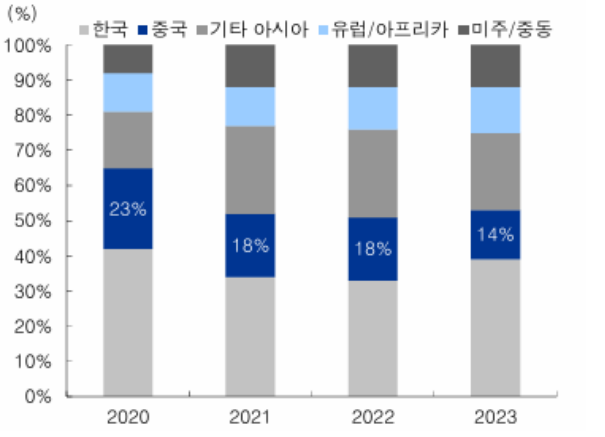
자료: 롯데케미칼, IBK투자증권

그림 3. 롯데케미칼 Capex 추이/전망



자료: 롯데케미칼, IBK투자증권

그림 4. 롯데케미칼 지역별 매출액 비중 추이



자료: 롯데케미칼, IBK투자증권

GS리테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적분할 결정
[출처]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결정

전일 GS리테일은 호텔 사업을 중심으로 한 파르나스홀딩스 신설법인의 인적분할과 자기주식 1.22% 소각 결정을 공시하였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분할비율은 0.8105782:0.1894218 이며, 분할 건이 올해 11/6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올해 12/26을 기일로 분할되고, 내년 1/16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사는 사업구조의 복잡성을 낮추어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고, 회사의 역량을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인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밸류에이션 레벨 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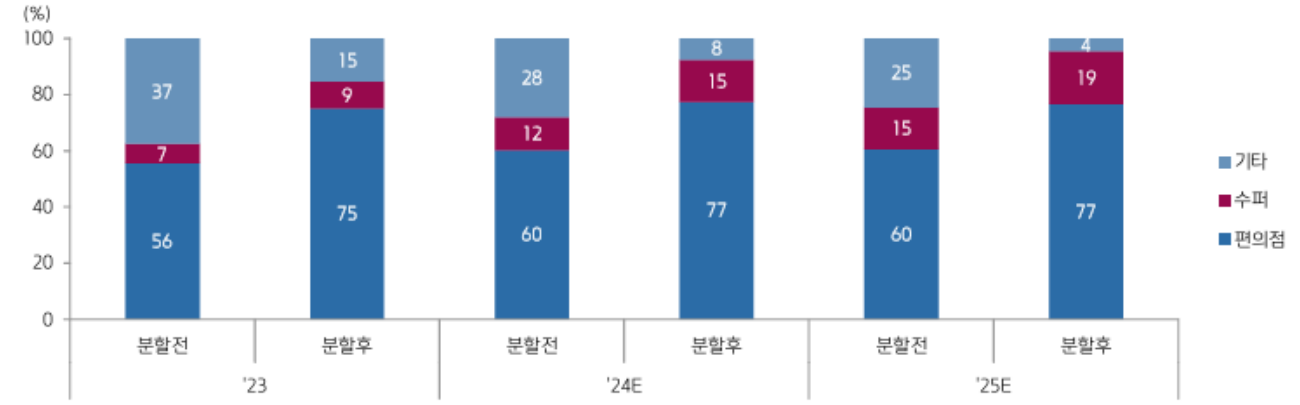
전일 동사의 인적분할은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고, 주가는 약 +15% 정도 상승하였다. 당사는 아래 3가지 이유를 감안하여, 이번 인적분할이 적사 밸류에이션 레벨 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사업구조의 복잡성을 낮추고 실적의 예측 가시성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호텔 사업의 실적은 소비 경기와 외부환경에 민감한 편이나, 편의점/수퍼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둘째, 실적 성장을 주도하는 편의점/수퍼 부문의 이익 비중 상승으로 인해, 분할후 존속법인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과 수퍼는 지속적인 점포 순증으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이 강화되면서, 수퍼 사업의 성장세가 강화되는 흐름이고, 핵심 경쟁사의 수퍼 사업부(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후 존속법인의 실적 전망에서 수퍼 사업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호텔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밸류에이션 레벨을 감안한다면, 분할후 신설법인의 밸류에이션 레벨도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텔 체읶은 동사 대비 PER 레벨이 높은 편(최소 14배 이상)이고, 기업가치 레벨이 자산가치(부동산)로 방어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031.9	11,612.5	12,141.4	12,656.6
영업이익	360.2	394.0	401.0	433.4
EBITDA	637.3	652.4	676.4	763.9
세전이익	211.7	148.0	274.5	304.6
순이익	47.6	22.1	203.3	230.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0.4	17.7	197.0	225.4
EPS(원)	386	169	1,882	2,179
증감률(%,YoY)	-95.7	-56.3	1,015.1	15.8
PER(배)	72.9	136.5	12.1	10.4
PBR(배)	0.73	0.59	0.56	0.54
EV/EBITDA(배)	6.2	5.1	4.8	4.4
영업이익률(%)	3.3	3.4	3.3	3.4
ROE(%)	1.0	0.4	4.8	5.3
순차입금비율(%)	14.1	11.7	10.7	12.4

주요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 비교: 분할전 GS리테일 연결기준 vs 분할후 GS리테일 존속법인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HB인베스트먼트
투자자산 회수가 담보하는 실적 안정성
[출처] NH투자증권 윤유동 애널리스트
분산투자가 담보하는 안정성
주요 영업 기조는 적극적인 펀딩을 통한 관리보수 확대. 현재 AUM은 5,900억원인데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억원씩 조달 목표. 딜 소싱 경쟁력도 보유. 대표적으로 HPSP, 뷰노, 바이오플러스, 크래프톤, 압타바이오 등 성공적으로 엑싯
상장 이후 펀드에 GP가 10% 이상 출자하며 책임감 높이는 모습.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평가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성향 10~20% 계획

2024~2025년은 수확의 시기
동사 포트폴리오 내 산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바이오 비중이 각 40%, 30%, 30%이며 섹터 내 기업들도 적정 비중 유지. 덕분에 실적 가시성이 높고 2023년에 타사 대비 지분법손실이 적어 유의미한 성장 달성
1Q24 영업수익 49억원(-2.7% y-y), 영업이익 22억원(-31.5% y-y, OPM 44.7%) 기록. 펀드 청산에 대한 성과급 지급 영향. 현재 밀리의 서재, 코어라인소프트, 케이웨더, 에스바이오메딕스, 슈어소프트테크 포함 13개 기업 회수 중. 이에 따른 성과보수는 올해 및 내년 반영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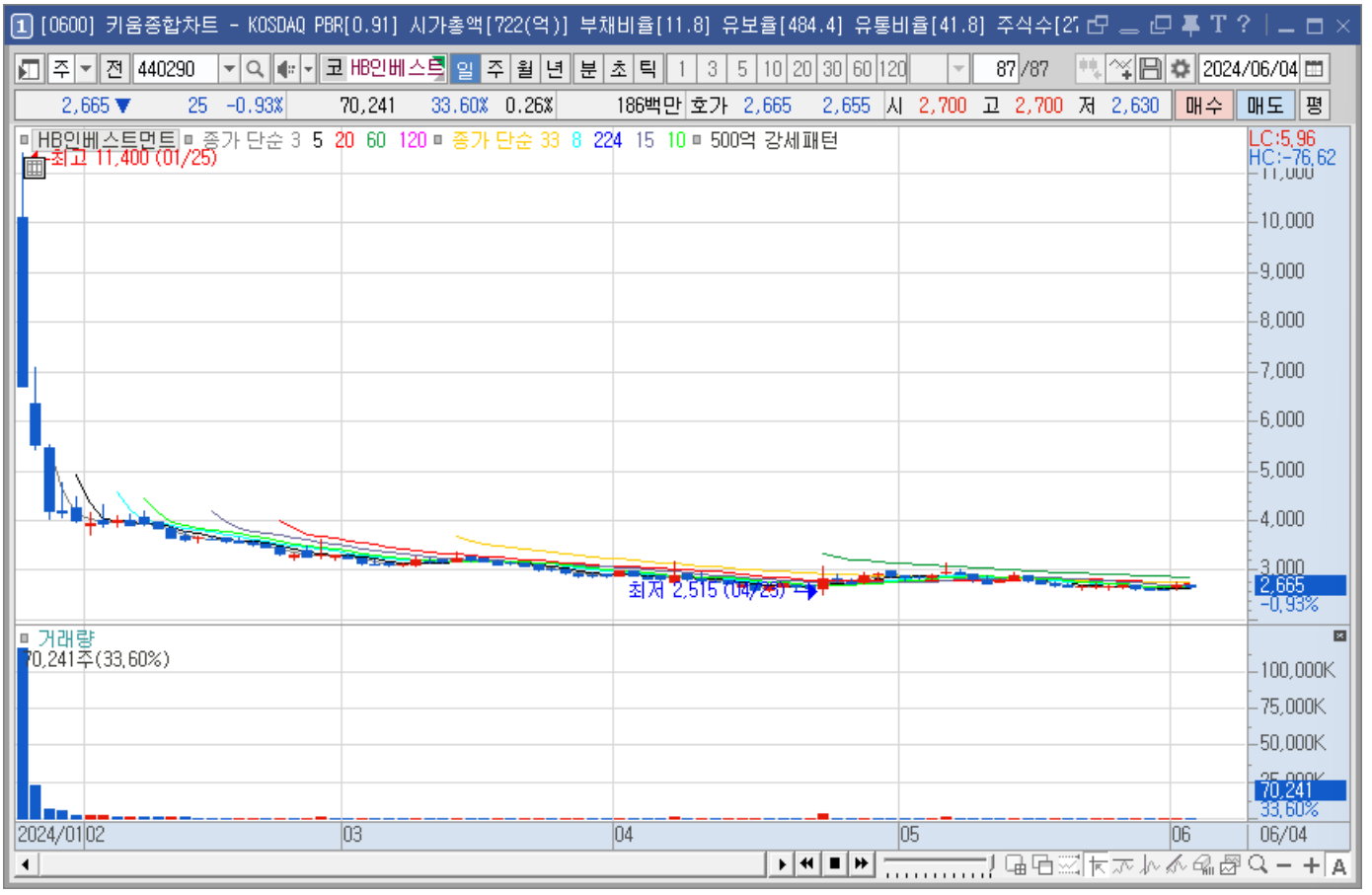
주가상승률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	-21.1	0.0	0.0
상대수익률 (%p)	-18.2	0.0	0.0

	2020	2021	2022	2023
영업수익	10,621	11,428	15,929	20,517
증감률	-	-	*39.4*	*28.8*
영업비용	-	3,655	6,638	9,911
증감률	-	-	*81.6*	*49.3*
영업이익	-	7,772	9,290	10,606
영업이익률	-	*68.0*	*58.3*	*51.7*
세전이익	-	7,813	9,327	10,810
당기순이익	-	6,080	7,472	8,881
증감률	-	-	*22.9*	*18.9*
EPS	-	-	-	444
PER	-	-	-	-
PBR	-	-	-	-
ROE	-	-	16.7	16.6

단위: 백만원, %, 원, 배

HB인베스트먼트 투자기업 IPO 준비 현황

자료: HB인베스트먼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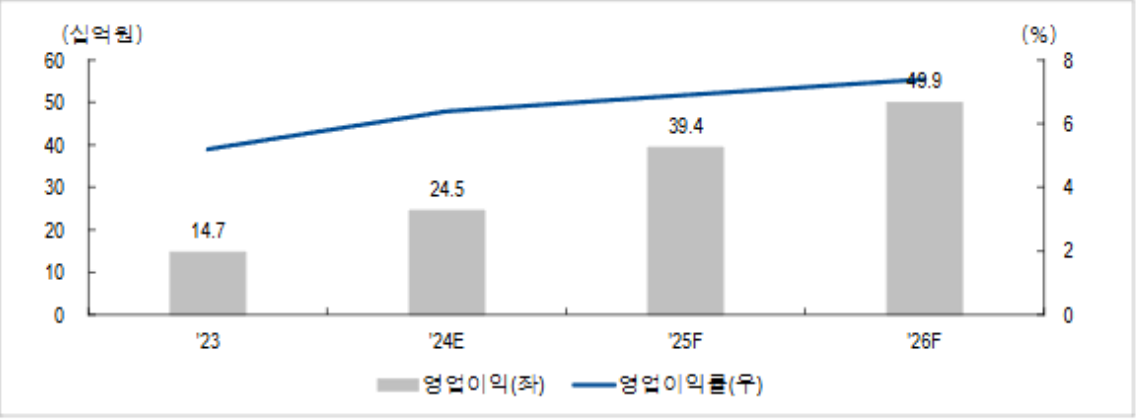
디케이티
전장 다변화 및 북미업체 폴더블 수혜 주목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폴더블과 전장의 성장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업체
동사는 과거 국내 스마트폰 고객 비중이 높아 성장성이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북미 업체로의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전장 및 ESS 등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 중장기 성장성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
가장 먼저 실적에 기여할 신사업은 차량용 무선충전 사업. 관련 사업부는 수주가 중장기적으로 쌓여 있어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 2026년부터는 북미 전기차 1위 업체에도 신규 납품이 기대되어 매력적. 또한 2025년부터 국내 자동차업체로 파킹 리튬 배터리모듈(PLBM)향 신규 매출로 성장세 가속화될 전망
고객사 측면에서는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 다변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 2024년 OLED 태블릿 모델에 처음으로 FPCA 모듈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 스마트폰, 2026년 폴더블 제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고객사 및 제품 다변화에 따른 이익 급증세에도 현저한 저평가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에 힘입어 동사 영업이익은 2024년 245억원(+66.8% y-y), 2025년 394억원(+60.7% y-y)을 기록하며 성장세 가파를 것으로 기대.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부 매출액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이익 성장세 전망
전장, 북미 스마트폰 업체, 폴더블 스마트폰 등 고객 및 전방산업이 다변화되어 중장기 실적 성장세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주당순이익 기준 PER 7.3배의 현재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80.2	383.9	568.2	670.4
증감률	*-22.9*	*37.0*	*48.0*	*18.0*
영업이익	14.7	24.5	39.4	49.9
증감률	*-30.7*	*66.8*	*60.7*	*26.7*
영업이익률	*5.2*	*6.4*	*6.9*	*7.4*
(지배지분)순이익	4.4	17.6	29.8	38.5
EPS	248	927	1,555	2,012
증감률	*-79.2*	*273.7*	*67.8*	*29.4*
PER	34.0	12.2	7.3	5.6
PBR	1.2	1.4	1.2	1.0
EV/EBITDA	7.0	6.3	4.1	3.2
ROE	3.8	12.5	18.1	19.4
부채비율	80.8	78.1	71.4	61.8
순차입금	7.3	3.3	-5.6	-13.1

단위: 십억원, %, 원, 배

디케이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전망



자료: 디케이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0600] 키움종합차트 - KOSDAQ PBR[1.59] 시가총액[2,154(억)] 부채비율[80.8] 유보율[1,318.8] 유통비율[46.5]
290550
디케이티
2024/06/04
11,250 630 -5.30% 426,872 48.09% 2.23% 4,868백만 호가 11,250 11,240 시 11,850 고 11,850 저 11,160
매수 매도 평
디케이티 종가 단순 3 5 20 60 120 종가 단순 33 8 224 15 10 500억 강세패턴
최고 16,750 (01/13)
배당락(0.00%)
최저 7,300 (10/10)
LC:54,11
HC:-32,84
거래량
426,872주(48.09%)
2021
2023
2024
06/04

[0600] 키움종합차트 - KOSDAQ PBR[1.59] 시가총액[2,154(억)] 부채비율[80.8] 유보율[1,318.8] 유통비율[46.5]
290550
디케이티
2024/06/04
11,250 630 -5.30% 426,872 48.09% 2.23% 4,868백만 호가 11,250 11,240 시 11,850 고 11,850 저 11,160
매수 매도 평
디케이티 종가 단순 3 120 종가 단순 45 8 224 15 10 종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최고 12,350 (06/03)
배당락(0.00%)
최저 8,000 (01/05)
LC:40,63
HC:-8,91
거래량
426,872주(48.09%)
2023/12
2024/01
02
03
04
05
06
06/04